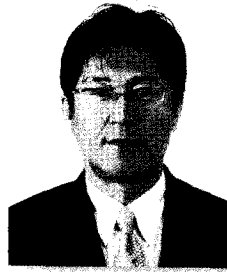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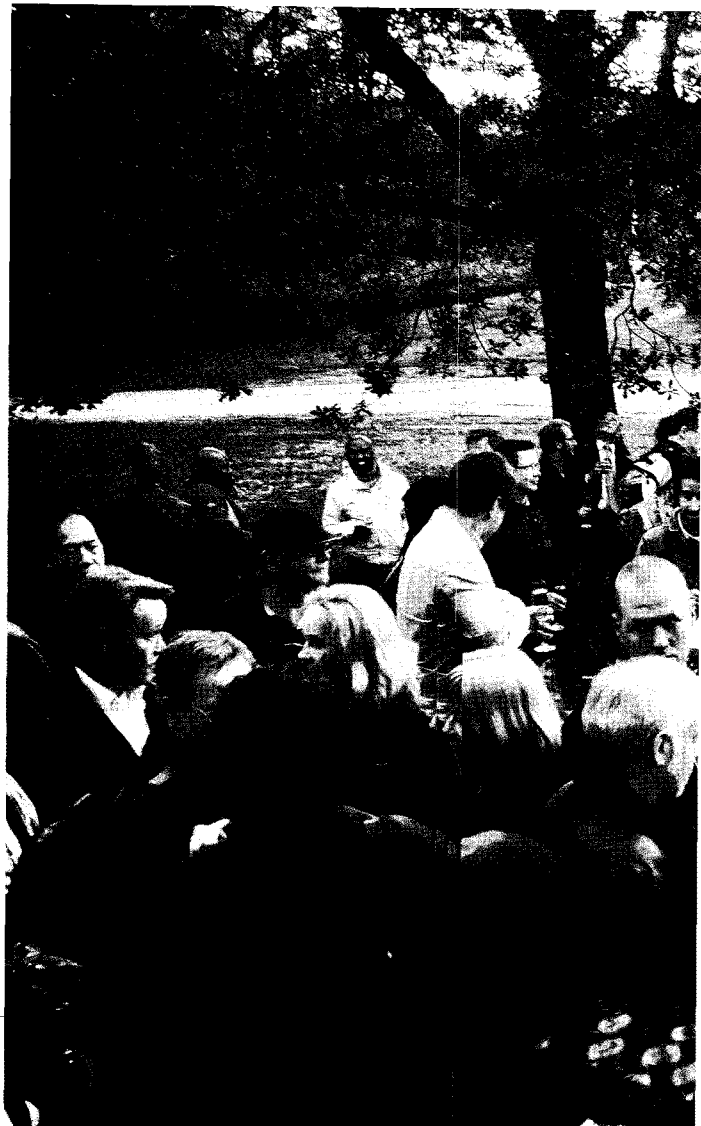
# IFPRA(International Parks & Recreation administration) 를 소개합니다



전영창 | 전무이사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IFPRA 한국대표위원

**Ifpra** 한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 5일 근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는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게 하였으며 주거생활에도 여러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과거보다 시간이 여유로워져 공원에서 산책, 운동, 커뮤니티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와 활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인식도가 높아졌다. 최근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과 도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시공원 근처를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본격적인 대규모 도시공원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조성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 공원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 공원이다. 열거한 두개의 공원은 한국도시공원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레크리에이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시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 많이 진보했다고 볼 수 있다.



1) 약 6000㎡이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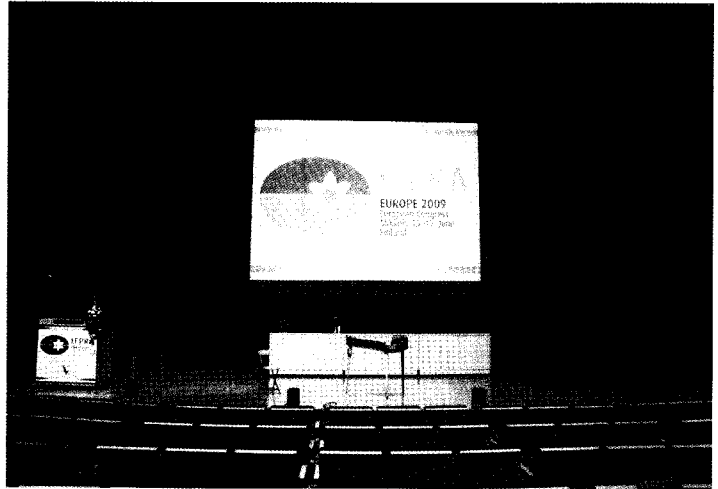
최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대규모의 공원은 최소한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내용이 조성 이후 수요, 프로그램, 관리운영이 처음과 많이 틀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무척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이라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역사가 짧고 공원의 운영관리 즉, 경영을 생각하기까지는 시간과 예산, 경험 등이 적어 생각은 하였지만 실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008년 5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내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도시공원이라는 행정서비스와 시민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과거 일본 도시공원(일본 규슈 소재 후쿠오카시)에서 2년 동안 공원관리를 한 덕분에 일본과 유럽의 인터넷사이트에서 IFPRA(International Parks & Recreation administration, 국제공원레크리에이션행정연맹)라는 조직을 알게 되었고 한국대표위원을 맡아 활동을 하게 되었다.

IFPRA는 “공원의 경영과 관리”의 분야에 관한 국제 조직으로, 1957년에 런던에서 열린 제1회 공원 레크리에이션 세계 대회에서 정식으로 발족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어메니티, 여가 대책 및 관련된 행정적 서비스

문화관광체육부는 제1차민선으로 각국의 회원들이 정부를 주관





2009 IFPRA유럽총회 대화장

의 진흥을 위해 국제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계 각국의 공원 녹지나 레크리에이션의 실무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하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IFPRA는 개인, 단체, 회사, 기관 등의 회원 등록에 의해 운영되며 세계 50여개국과 지역으로부터 약 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10월 23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개최된 (사)한국조경학회 총회에서 2010년에 한국IFPRA를 창립하기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되어 도시공원의 본격적인 경영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

IFPRA는 도시공원과 레크리에이션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총회, 유럽총회, 월드총회를 각각 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핀란드, 미켈리에서 “현대사회와 자연과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럽총회가 개최되었다.

주요내용은 21세기 핀란드 조경, 문화와 자연, 예상 가능한 유럽기후에 대한 21세기의 도전, 21세기 공원 디자인, 국립 도시 공원, 헬싱키 공원 및 인프라, 21세기 공원 및 도시 경관 워터, 리스본 - 21세기 공원 및 인프라, 도시공원의 경제 & 공학 가치, 모든 사람들 즉, 나이, 건강 및 웰빙을 위한 도시공원가치 등의 주제로 많은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전사물도 아니며 녹지공간과 휴식처만을 주는 공간도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여 현대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미켈라시의 도서관원 참관

핀란드의 전통퍼포먼스

